



세대 교감 복합예술공간 달아실

달아실 문솔희 대리

월곡리의 순우리말로 ‘달빛이 흐르는 골짜기’를 뜻하는 달아실은 2015년 12월 개관한 복합예술공간입니다. 달아실은 옥산가 김현식 대표의 수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소장품은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문학, 미술, 골동품, 자동차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달아실에서 재직 중인 문솔희 대리를 만났습니다.

달아실은 1층 갤러리, 2층 근대사 박물관, 3~4층 장난감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 갤러리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운기 조각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층 근대사 박물관에서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긴 생활용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억의 국민학교 교실을 재현한 포토존에는 춘천에 있는 학교의 졸업앨범 300여 권이 준비돼 있습니다. 3~4층 장난감 박물관에는 약 2만여 점의 진귀한 장난감과 만화 영화 속 캐릭터 상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층에는 실물 크기의 피규어로 꾸며진 포토존이 있어 남녀노소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달아실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입니다. 전시 관람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직관하여 교감하고, 역사를 배우는 즐거운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화 033-243-2111
관람시간 10:00~18:00(입장마감 17:00) 연중무휴
관람료 티켓구매는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구분	이용요금(원)	
	개인	할인요금
일반	10,000	8,000
학생&어린이	5,000	4,000

※ 달아실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초등생 이하 어린이는 입장 불가

※ 학생&어린이 요금: 36개월 미만은 증빙서류 지참 시 무료
 대학생 및 학생은 학생증 제시

※ 중복 할인 불가

